

『기록과 유물로 본 우리 음악의 역사』  
(국사편찬위원회 편, 두산동아, 2009)

마 원 준\*

음악은 무형(無形)의 시간 예술로 연주 기술, 공연 및 소통방식 등이 주로 생활을 통해 구비전승(口碑傳乘)된다. 따라서 문자로 기록된 음악의 역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음악의 특성으로 인해 음악 기록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음악사가(音樂史家)들은 각 시대별 역사서에 등장하는 음악과 관련된 내용, 악서(樂書), 기보법(記譜法)<sup>1)</sup>에 의한 악보, 유물과 유적에 포함된 음악의 형상 또는 형상물, 근·현대에 녹음·녹화된 각종 시청각 자료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문자 기록 외에 고고학 자료, 도상(圖像) 자료, 구비전승 자료 등을 음악사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

\* 국가기록원 기록연구사

- 1) 일정한 약속이나 규칙에 따라 기호를 써서 악곡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보통 음의 높이나 길이 또는 강약, 음악의 속도와 감정, 연주법 등을 표시하여 성악(聲樂)이나 기악(器樂)을 막론하고 음악의 창작과 보존 및 재생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사용된다. 서양음악에서는 기보법이 12세기 이후부터 발달하여 15~16세기 무렵에 오늘날의 ‘오선보(五線譜)’로 확립되었다.

본서는 음악사가들에 의한 이러한 연구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음악인 ‘국악(國樂)’을 주요 주제로 삼고, 통사적으로 저술한 문화 서적이다. 국악학자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술했기 때문에 학술적 내용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어려운 주제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독자들의 쉬운 이해를 위하여 각 장마다 주제와 관련된 각종 삽화와 상세한 설명은 ‘읽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을 누리게 한다.

## 본서의 기획 및 편찬 목적

본서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획 의도를 살필 필요가 있다. 간행 취지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본서는 2001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와 학계의 기획 검증을 통해 편찬되었다.<sup>2)</sup>

국사편찬위원회는 시대적 요구와 학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 문화사』를 편찬하기로 하고, 2001년부터 관련 학회와 연구 기관에 문화사 편찬을 위한 기초 작업을 의뢰하였다. 그리고 2002년에는 학술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편찬 방향을 논의하였고, 2003년에는 「한국 문화사 편찬을 위한 기초 연구」를 통해 본격적인 편찬 사업을 준비하였다. 그 결과 『한국 문화사』를 전(全) 60권으로 편찬하기로 하고, 다섯 가지 편찬 목표<sup>3)</sup>를 세웠다.

- 2) 『한국 문화사』의 권별 주제는 2003년에 구성된 ‘한국문화사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검증을 통하여 결정된다.
- 3) 첫째, 우리 겨레의 삶과 문화에 대한 폭넓은 검토를 통해 창조적 문화 활동의 진행과정을 구명한다. 둘째, 우리 문화가 지닌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과 역동성을 찾아내고 인접 문화와의 관계를 밝혀낸다. 셋째, 학제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한국학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 넷째, 21세기 나라와 겨레의 문화 역량 향상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다섯째, 우리 문화의 포용성을 구명함으로써

이를 위해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학뿐만 아니라 민속학, 철학, 종교학, 경제학 등 약 100여명의 달하는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을 필자로 참여시켜 특정 주제를 여러 학문 분야의 관점에서 기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05년 5권, 2006년 5권, 2007년 10권, 2008년 3권, 2009년에는 25권에 해당하는 본서를 편찬하였다.

그동안 한국 문화사를 다룬 책들은 특정 문화재나 사건을 주로 기술하는 데 머물렀지만, 본서는 다양한 문화 현상 중 음악을 주제로 선정하고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음악사와 악서(樂書), 기보법, 각종 유물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국악을 주제로 한 통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구성 및 주요 내용

본서는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분야별 국악교수 및 전문가들이 집필을 맡았다. 음악 만들기의 의미와 선사시대부터 삼국·남북국·고려·조선시대 음악의 일반적 특징을 다룬 제1장‘음악 만들기’와 일정한 약속이나 규칙에 따라 기호를 써서 음률, 연주방식 등을 표기하는 방식을 다룬 제2장‘기보법의 발달과 악보’는 권오성<sup>4)</sup>이, 각종 음악 문헌을 소개한 제3

---

씨 체제와 이념을 극복하고 민족 화해에 기여하며 통일 한국에 대비한다.

- 4)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 교수, 한국국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양대 명예교수이자 사단법인 동북아음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한민족 음악론』, 『한국 전통 음악』이 있고, 논문으로는 「병와 이형상의 악론 연구」, 「고구려 음악의 정체성」 등이 있다

장 ‘기록의 역사로 본 음악 문헌’은 김세종<sup>5)</sup>이, 그림과 음악 유물·도상 자료 등에 나타난 음악문화를 설명한 제4장 ‘음악사의 또 다른 흔적들’은 송혜진<sup>6)</sup>이, 근현대에 이르는 음반사를 기술한 제5장 ‘소리의 기록, 음반사’는 노재명<sup>7)</sup>이 각각 저술하였다.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한국사의 일반적 시대구분에 따라 각 시대별로 만들어진 음악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먼저 선사시대는 『후한서(後漢書)』 「동이전」에 기록된 부여의 ‘영고(迎鼓)’, 고구려의 ‘동맹(東盟)’, 예의 ‘무천(舞天)’ 등 제사와 축제가 가미된 음악 문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삼국시대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분벽화 등을 통해 시(詩), 가(歌), 무(舞)가 각각 독립적으로 연행되기 시작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통일신라시대는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당악(唐樂), 불교음악, 서역(西域) 음악이 유입되면서 음악의 확장을 이루었고, 고려시대는 통일신라의 음악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중국의 음악문화를 자주적으로 수용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조선시대는 유교이념을 국시(國是)로 삼아 예(禮)와 악(樂)을 중시한 사례를 관

- 
- 5) 전남대 국악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사단법인 다산연구소 연구실장을 맡고 있으며, 전남대와 동국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조선 음악의 연구』가 있고, 논문으로는 「삼분손익법의 사적 고찰-다산 정약용의 『악서고준』을 중심으로」, 「한·중 문묘 제향악의 문화적 연구-각 시대별 변이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 6)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숙명여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숙명가야금연주단 대표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 아악 연구』, 『한국악기』, 『우리 국악 100년』, 『국악, 이렇게 들어보세요』, 『청소년을 위한 한국 음악사』 등이 있다.
  - 7) 국악음반박물관 관장으로 판소리 자료 집성 전문지인 『판소리 명창』 발행인이 다. 국악음반박물관 가무악단 ‘소리뮤즈’ 단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고음반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악 음반 300여 종의 기획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국악 자료 4만여 점을 수집·정리하였다. 저서로는 『판소리 음반 걸작선』, 『판소리 음반 사진』, 『고음반의 국악인 약력 집성』, 『명창의 증언과 자료를 통해 본 판소리의 참모습』 등이 있다.

런 문헌 적시하며 풍부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외래 음악의 수용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전통 음악이 창작·발전하면서 양반 출신의 사대부와 실학자, 탄탄한 사회적 기반을 지닌 중산층, 천인인 광대에 이르기 까지 대중적으로 보편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문고 산조, 판소리 등의 음악 장르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제2장은 악곡을 기록하는 방법인 기보법의 개념과 종류, 각종 악보 등을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양의 기보법이 15~16세기에 ‘오선보(五線譜)’로 확립된 시기에 우리는 ‘정간보(正間譜)’<sup>8)</sup>라는 독자적인 기보법을 창안해서 사용해 왔다는 점이 음악 전통의 수준을 가늠하게 할 수 있는 대목으로 다가왔다. 이외에도 육보(肉譜), 율자보(律字譜), 공척보(工尺譜), 약자보(略字譜), 오음약보(五音略譜), 합자보(合字譜), 연음표(連音標) 등 총 여덟 가지의 기보법을 사용했으며, 현재도 ‘율자보’와 ‘정간보’는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음악을 전승하고 재현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현시대적 적용성에 놀라움을 이끌어 내었다. 뿐만 아니라, 기보법에 따라 표기된 『세종실록악보』, 『악학궤범(樂學軌範)』, 『시용향악보(時用鄉樂譜)』, 『대악전보(大樂前譜)』, 『대악후보(大樂後譜)』, 『속악원보(俗樂源譜)』와 16세기~19세기에 이르는 다양한 악보의 주요 내용을 특징을 설명을 통해 국악악보의 통사적 이해를 돕고 있다. 필자를 포함하여 서양의 오선보에 익숙한 독자들이 해당 기보법의 해독이 쉽지 않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제3장은 각종 음악문헌을 소개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3대 악

8) 세종 때 창안한 기보법으로 음의 길이를 알 수 있는 ‘유량악보(有量樂譜)’이다. 세종은 우리의 음악이 길고 짧음의 변화가 중국 음악에 비해 많지만 기존 악보가 음높이만 표기하고 있어 우리의 음악을 온전히 표기할 수 없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간보를 창안하였다.

서인 『악학궤범』, 『시악화성』, 『악서고존』과 악기 제작 과정·악기의 종류·의례 음악·복식(服飾)·악기 편제 등을 상세히 설명한 각종 ‘의궤(儀軌)’, 춤 동작을 기록한 ‘무보(舞譜)’, 음악관련 관찬서, 개인문집 속에 나타난 음악 등의 설명을 통해 조선시대의 음악의 흐름과 변천사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제4장은 음악 문헌 외에 각종 그림, 음악 유물, 도상 자료 등을 통해 악기의 구조와 형태, 악기 연주 방법, 악기와 성악의 어울림, 악보 등의 음악과 관련된 문헌, 연주의 공간 배열과 악기 위치, 음악의 청중, 무대와 연주 공간, 음악의 사회적 역할, 음악가의 초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도상학(圖像學)<sup>9)</sup> 관점에서 바라본 각종 도상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악서 외에도 시대를 넘어오면서 전승된 각종 악기, 고대의 고분벽화, 불화(佛畵), 문인화, 풍속 등의 회화와 석탑, 승탑(僧塔) 등의 석조 미술품, 범종(梵鐘) 등의 금속 공예품, 토기, 토우, 도자기류 등에 음악과 춤의 역사가 표현되어 있어 음악과 관련된 도상자료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장은 사람들의 일상과 깊이 연관된 음악을 만들고 향유하면서 각종 기록매체를 통해 표현하고 기록한 음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현대 기술이 가져다 준 음반의 득(得)과 실(實)을 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음반이 들어와 제작된 1896년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음반 제작과정을 일제강점기와 현재까지의 흐름을 고찰하면서 근현대 우리 문화 예술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역사기록물인 유성음반기와 각종 음반 등을 소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

9) 작품의 일정 주제, 그 안에 포함된 개별 형태, 개별 형태의 상징물, 상징, 알레고리에 대한 일종의 ‘형상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다시 그 모든 개체를 종합하여 해석하도록 하는 인문학적 미술사 연구 방법론으로 음악 도상 연구는 음악을 기록과 악보 중심으로 연구하는 음악사 연구에 비해 역사는 짧지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음반이라는 매체를 통해 음악 문화의 흐름이 대중화되는 이득을 가져왔지만, 음악의 획일화와 대중화에 실패한 음악의 쇠퇴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음악의 음반화 작업과 함께 아카이브의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어 음악기록의 수집 및 관리를 제안하고 있다.

## 시사점

본서를 접하면서 두 가지 부분에서 깨달은 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음악과 관련된 우리의 기록과 유물이 고대부터 근·현대 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다는 것과 우리 음악에 대한 무지(無知)를 반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향후 기록관리와의 연대 측면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컸다. 저자들은 현대에 와서 우리 음악의 대중화를 위해 음반 제작도 중요하지만, 음악 기록의 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함을 한결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음향 기록의 수집·연구·보존·활용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립·사립·분야별 영상 자료관(archives) 건립을 제안하고 있다.

1999년부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민(民)·관(關)·학(學)이 기록관리를 국가의 과제로 끌어올린 우리의 과거와 사뭇 다르지 않다. 그간 기록관리 분야가 다양한 기록을 관리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시행착오가 무형의 음악을 유형의 기록을 통해 전승·발전시키려는 한국 국악계와 접목하고 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한다.

2003년 타계하신 판소리 명창 박동진 선생께서 생전 광고에서

“우리의 것이 소중한다”라고 말씀하신 대목을 상기하면서 독자들의 다독을 권장한다.